

농촌 폐교 활용 복지시설에 대한 이용자 인식 연구

김정은* · 류진석** · 김대식*** · 정여주****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 ·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충남대학교 지역환경토목학과 교수 · *청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Users' Perceptions on Welfare Facilities using Closed Rural Schools

Kim, Jeong-Eun* · Ryu, Jin-Seok** · Kim, Dae-Sik*** · Jung, Yeo-Joo****

*Dept. of Social Welfar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ecturer

**Dept. of Social Welfar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Agricultural Engineeri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Chungwoon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ABSTRACT : School closures in rural areas is especially relevant because low fertility rate and population aging are common not only in rural but also in urban areas. This paper examined a variety of users' perceptions on welfare facilities using closed rural schools. For this study, the descriptive survey research design was conducted at the EZER located in Kyungsnangbuk-do. The sample size of 200 was selected through convenience sampling and data collection was completed by a self-completion written questionnaires.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1) the level of users' relative satisfaction with welfare facilities using closed rural schools was generally positive, main factor associated with relative satisfaction was facilities and surrounding environment at closed rural schools, 2) socioeconomic usefulness of closed rural schools was also generally positive, main factors for revitalization were adequate facilities and places, accessible and convenient places, 3) future necessity and willingness for welfare facilities using closed rural schools were overwhelmingly positive, children or youth were revealed as a priority service target. Finally, theses analyses show that a high proportion in the rural welfare sector, especially seemed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bridging negative gaps between urban and rural in the socioeconomic development and social welfare.

Key words : Closed Schools, Rural areas, Users' perceptions, Welfare facilities

1. 서 론

최근 농촌경제연구원의 도농 간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 결과, 보건·복지 영역의 도농 간 만족도 격차가 가장 크고,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의 핵심적인 요

인으로 보건·복지 영역이 꼽힌 바 있다(Kim and Kim, 2020). 특히,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농촌 학령인구의 빠른 감소와 폐교의 가파른 증가세를 감안하면 도농 간 복지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대안 중 농촌 폐교를 활용한 복지시설의 구축과 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농촌에서의 폐교는 단순히 지역에서 학교가 사라지는 교육적, 물리적인 의미만을 뜻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학교는 학생들의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다양한 인적자본,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유지 기능을 촉진시키고, 전체 지역사회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이기

Corresponding author : Ryu, Jin-Seok

Tel : +82-42-821-6475

E-mail : ryujs@cnu.ac.kr

Corresponding author : Kim, Dae-Sik

Tel : +82-42-821-5795

E-mail : drkds19@cnu.ac.kr

때문이다(Autti and Hyry-Beihammer, 2014; Egelund and Laustsen, 2006; Kroismayr, 2019). 이에 폐교는 그 지역의 고유한 역사성과 정체성 상실은 물론 지역 전반의 교육과 문화, 경제, 사회 차원의 중요한 공공체계의 박탈이나(Choi, 2020; Lee, 2018) 지역사회의 소멸 징후로 간주되어 왔다(Egelund and Laustsen, 2006).

현재 우리나라 폐교는 각 시·도 교육청에서 폐교 활용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매각되거나 교육, 문화예술, 체육, 복지 등의 목적을 실시하는 기관에 임대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알리미의 2020년 현황에 의하면 전국의 폐교 수는 3,857개소로 집계되었는데, 이중 매각은 2,419개소, 대부나 임대는 637개소, 자체활용 312개소인 반면 미활용 폐교는 408개소로 나타났다(Local Educational Financial Statics Information System, 2020).

폐교 활용에 대한 조사 결과, 단순 매각 이외의 임대와 자체활용하고 있는 폐교의 유형은 크게 교육, 문화, 수련,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로 구분되고, 주로 복지시설 관련 유형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Choi, 2020). 우리보다 농촌 고령화와 폐교 문제를 먼저 경험한 일본 역시 폐교 활용은 노인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지역커뮤니티시설 등 복지시설의 유형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Kim, 2020).

농촌 폐교 활용 시설의 효과성은 지역주민들의 심리사회적인 긍정적인 변화와 기여, 시설의 수익성뿐만 아니라 지역 관광객 유치와 소득 창출, 지역브랜드 가치 상승 등 지역 경쟁력까지도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and Lee, 2012).

위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들을 근거해 볼 때, 농촌 폐교를 활용한 복지시설은 향후 농촌복지와 도농공존 향상을 위한 중요한 자원임이 분명하다. 앞으로 농촌 폐교 활용 복지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실천과 정책지원을 촉구하기 위해서는 폐교를 활용한 복지시설의 이용과 유용성, 수요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가장 먼저 농촌 폐교 활용 복지시설을 직접 이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용과 관련된 다양한 인식이 체계적으로 축적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동안의 연구들은 주로 농촌 폐교 현황, 노인 및 장애인복지시설, 지역주민 활용 방안이나 일부 운영 사례 소개(Choi, 2020; Kim, 2021; Lee, 2018; Lee, 2020)와 같은 실태분석에만 편중되어 왔을 뿐 폐교 활용 복지시설 이용자들이 대한 인식 조사는 아직까지도 매우 제한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농촌 폐교를 활용한 복지시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이용과 관련된 다양한 인식을 조사하고, 농촌복지와 도농공존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전

략들을 제시하는데 있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농촌 폐교를 활용한 복지시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농촌 폐교 활용 복지시설의 상대적인 만족도와 관련 요인, 사회경제적인 유용성과 활성화 주요 요인, 향후 수요에 대해 조사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폐교 활용 복지시설의 활성화 전략을 위한 기초정보로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II. 연구방법

1. 조사방법

조사대상자는 농촌 폐교 활용의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들이다.

조사대상자 표집은 코로나19의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일부 농촌 폐교 활용 복지시설의 이용자로 한정하는 편의표집(convenience sampling) 방식으로 확보하였다. 일반적으로 편의표집은 적합한 조사대상자 확보와 원활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주변에서 접근 가능한 표본을 선정하는 비확률적인 표집방법 중 하나이다.

구체적으로 조사대상자는 경상북도 김천시(아포읍 황소길)에 위치한 사단법인 에제르를 이용하는 이용자로 설정하였다. 편의표집의 조사지역으로 선정된 이 복지시설은 폐교된 지동초등학교를 활용하여 2013년도에 비영리법인으로 시작하여 현재 평생교육, 노인 및 장애인 직업재활 프로그램, 농업체험, 농산품을 활용한 판매와 카페 운영의 사회적 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2018년 제1회 농촌 빈집 및 유휴시설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전국 우수상을 수상하였기 때문에 농촌 폐교 활용 복지시설에 대한 이용자들의 다양한 인식 조사가 적절한 곳이라 할 수 있다.

자료 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대상자가 직접 응답을 기입하는 자기기입의 서베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서베이는 연구목적과 내용에 동의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2021년 8월부터 9월까지 총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2. 측정방법

농촌 폐교 활용 복지시설 이용자들의 인식은 크게 상대적 만족도와 관련 주요 요인, 사회경제적 유용성과 활성화 주요 요인, 향후 수요의 3가지로 영역으로 측정하였다.

첫째, 이용자들이 인식하는 농촌 폐교 활용 복지시설의 상대적인 만족도는 “귀하의 지역사회에 위치한 다른 관련 복지시설과 비교했을 때 농촌 폐교 활용 복지시설에 대한 상대적인 만족도는 어떻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1점=매우 불만족스럽다’에서 ‘5점=매우 만족스럽다’까지 5점의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농촌 폐교 활용 복지시설에 대한 상대적인 만족도와 관련된 주요 이유는 5개의 범주(주요 시설 및 환경,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 시설의 접근성 및 편의성, 기타)에 대하여 해당되는 것을 모두 응답하는 범주형의 다중응답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둘째, 농촌 폐교 활용 복지시설의 사회경제적 유용성은 “본 농촌 폐교 활용 복지시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도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 5점의 리커트 척도로 조사하였다.

활성화 주요 요인은 10개의 응답 범주(행정기관의 지원, 시설 운영자의 리더십, 프로그램 운영자의 전문성, 프로그램의 운영인력,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의 질, 시설의 편의성 및 접근성, 시설에 대한 홍보, 다양한 시설 공간, 지역주민의 협력, 기타)에 대한 1순위 및 2순위의 다중응답으로 조사하였다.

셋째, 이용자들이 인식하는 농촌 폐교 활용 복지시설의 향후 수요는 3가지의 변수로 측정하였다. 먼저, “우리 나라에서 폐교를 활용한 사회복지 관련 시설(예: 노인, 장애인, 아동 및 청소년 돌봄, 교육 및 여가 등)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예와 아니오의 단답형 응답으로 측정하였다.

다음으로 “향후 폐교를 활용한 사회복지 관련 시설이 조성된다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대상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은 5개의 응답 범주(아동 또는 청소년, 노인, 장애인, 지역사회 주민, 기타)로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향후 폐교를 활용한 사회복지 관련 시설(예: 노인, 장애인, 아동 및 청소년 돌봄, 교육 및 여가 등)이 귀하의 주변에 조성된다면 적극적으로 이용할 의사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은 예와 아니오의 단답형의 응답으로 조사하였다.

넷째,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 변수는 성별, 연령대(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결혼 여부(미혼, 기혼), 학력(고졸 이하/재학 포함, 대졸/재학 포함, 대학원 이상/재학 포함) 직업 유무, 거주지(경상북도, 기타)로 측정하였다.

3. 분석방법

총 200명에 대한 편의표집 종료 후 전반적으로 응답이 부실한 4개의 사례를 제외한 총 196명의 응답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응답 자료의 분석도구는 SPSS 25.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빈도분석과 하나의 질문에 여러 개의 복수 응답을 분석하는 다중반응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먼저, 성별은 여성이 133명(67.9%)으로 남성 62명(31.8%)보다 많았으며, 결혼은 미혼이 12명(6.3%)인데 반해 기혼이 177명(93.7%)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은 30대가 105명(53.6%)으로 가장 많고 40대가 60명(3.0%), 50대가 17명(8.7%) 순으로, 학력은 대학교 졸업(재학 포함)이 147명(75.8%), 고등학교 졸업 이하(재학 포함)가 28명(14.4%), 대학원 졸업(재학 포함)이 19명(9.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업 유무는 있음이 145명(74.8%), 없음은 49명(25.2%)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는 16개 지자체 가운

Table 1. Description of research participants

Variables		N	%
Gender	Male	62	31.8
	Female	133	67.9
	Total	195	100.0
Age	20-29	9	4.6
	30-39	105	53.6
	40-49	60	30.6
	50-59	17	8.7
	60+	5	2.6
	Total	196	100.0
Marriage	Unmarried	12	6.3
	Married	177	93.7
	Total	189	100.0
Education	High school(↓)	28	14.4
	College/University(↑)	166	85.6
	Total	194	100.0
Having a Job	Yes	145	74.8
	No	49	25.2
	Total	194	100.0
Religion	Kyungsangbuk-do	175	89.3
	Etc	21	10.7
	Total	196	100.0

데 에제르가 위치한 경상북도가 175명(89.3%), 기타 지역은 21명(10.7%)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인 특성은 에제르가 위치한 경상북도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30-40대 가족 단위의 이용자들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폐교의 활용이 교육과 문화, 복지 관련 시설 등의 유형이 많다는 선행연구 결과(Choi, 2020)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2. 농촌 폐교 활용 복지시설의 상대적 만족도와 관련 주요 요인

지역에 위치한 관련 복지시설과 비교한 농촌 폐교 활용 복지시설에 대한 상대적인 만족도를 5점의 리커트 척도로 조사한 결과는 Figure 1과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대적인 만족도가 만족스러운 편이 115명(59.9%)으로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뒤이어 비슷한 수준이라는 응답이 45명(23.4%), 매우 만족스럽다가 21명(10.9%)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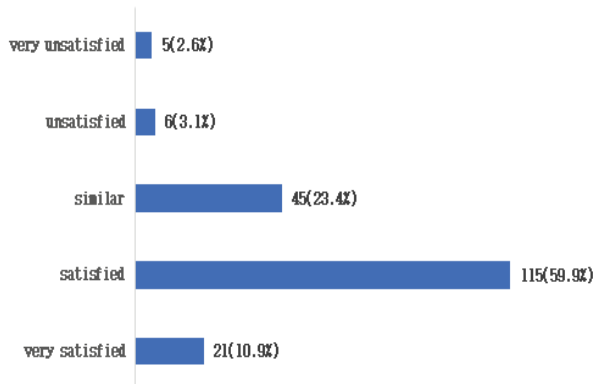


Figure 1. Relative satisfaction with welfare facilities using closed rural schools

상대적인 만족도와 관련된 주요 요인을 다중응답으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주요 시설 및 환경이 62명(44.9%)로 가장 높고,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내용이 26명(18.8%),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이용료가 24명(17.4%), 시설의 접근성 및 편의성이 23명(16.7%)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에는 친절, 자연친화적 환경과 아이들이 넓기에 넓은 환경, 자연환경이 주는 평온함으로 나타났는데 이 역시 주요시설 및 환경과 관련된 의견으로 볼 수 있다.

Table 2. Main factors associated with relative satisfaction (multiple responses)

Categories	N	%
Main facilities and environment	62	44.9
Contents of programs and services	26	18.8
Fee of programs and services	24	17.4
Accessibility and Convenience	23	16.7
Etc	3	2.2
Total	138	100.0

3. 농촌 폐교 활용 복지시설의 사회경제적인 유용성과 활성화 주요 요인

농촌 폐교 활용 복지시설의 사회경제적인 유용성에 대한 5점의 리커트 척도로 조사 결과는 Figure 2와 같다. 그렇다는 긍정적 응답이 91명(46.4%)으로 가장 높고, 중간인 보통의 정도가 58명(29.6%), 매우 그렇다는 35명(17.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사회경제적인 유용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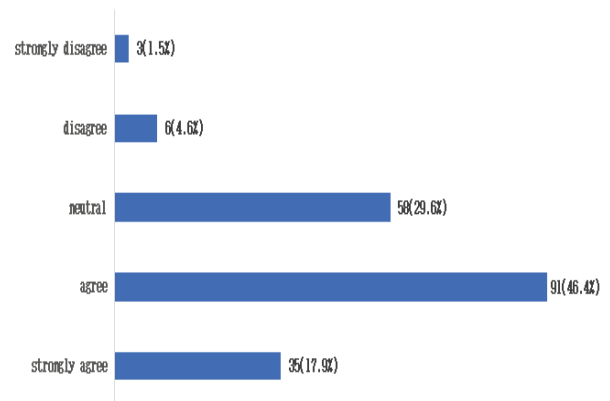


Figure 2. Socio-economic usefulness of welfare facilities using closed rural schools

농촌 폐교 활용 복지시설의 사회경제적인 유용성에 대한 활성화 관련 요인을 1순위 및 2순위의 다중응답으로 조사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1순위는 다양한 시설 공간이 78명(20.9%), 2순위는 시설의 편의성 및 접근성이 72명(19.3%)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제시된 농촌 폐교 활용 복지시설의 상대적 만족도와 관련된 주요 요인 분석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이용자들의 상대적 만족도와 사회경제적인 유용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그동안 폐교가 갖고 있는 농촌 학교 시설과 환경이라는 고

유한 독특성, 다양한 문화 및 여가, 교육, 복지 관련 욕구들을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성이 반영된 결과이다.

동시에 최근 농업과 농촌의 달라진 사회적 인식을 재확인시켜주는 결과이다. 농업이나 농촌의 다원적 기능 중 농촌 활력과 도시 문제 완화, 휴식 공간 제공, 전통 문화의 계승과 보전, 향토적인 정체성 등의 유지가 농업인과 일반 대중의 삶의 질, 안녕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 최근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수요 역시 크게 증가했다는 선행연구 결과(Sung et al., 2020)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제 폐교가 농촌 지역의 낙후와 소멸의 상징이라는 기존의 부정적인 편견에서 벗어나 새로운 농촌 공동체 형성의 자원과 공간으로 달라지고 있다. 때문에 농촌의 변화와 도농공존의 상생차원에서 폐교 활용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이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Table 3. Main factors for revitalization of welfare facilities using closed rural schools(multiple responses)

Categories	N	%
Support from administrative agencies	58	15.5
leadership of managers	23	6.2
Professionalism of workers	27	7.2
Enough workers	12	3.2
Quality of programs/services	68	18.2
Accessible and convenient places	72	19.3
Enough information for use	20	5.4
Adequate facilities and places	78	20.9
Cooperation with dwellers	15	4.0
Total	373	100.0

4. 농촌 폐교 활용 복지시설의 향후 수요

농촌 폐교 활용 복지시설에 대한 향후 수요에 대한 3가지 변수의 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먼저, 향후 농촌 폐교를 활용한 복지시설의 적극적인 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 결과, 191명(99.0%)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농촌 폐교 활용 복지시설의 가장 우선적인 이용자에 대한 응답은 아동 또는 청소년이 119명(61.7%)으로 가장 많고, 지역사회 주민이 49명(25.4%), 노인이 15명(7.8%), 장애인 15명(7.8) 기타 4명(2.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농촌 폐교 활용 복지시설에 대한 이용의 사 역시 183명(97.3%)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전반적으로 농촌 폐교 활용 복지시설에 대한 향후 수요는 긍정적인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일부

폐교 활용 복지시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일반화의 한계가 존재하지만, 앞서 분석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높은 향후 수요는 곧 농촌 폐교 활용 복지시설의 차별화된 강점과 역량, 지속가능성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수준이 높아질수록 농업과 농촌의 사회문화적인 기능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는데, 선행연구 결과 중 농업과 농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기능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사회적 수요가 높아진다는 결과와(Sung et al., 2020)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Table 4. Future demand for welfare facilities using closed rural schools

Categories		N	%
The necessity of welfare facilities	Yes	191	99.0
	No	2	1.0
	Total	193	100.0
Priority user for welfare facilities	Children/youth	119	61.7
	Elderly persons	15	7.8
	Person with disabilities	6	3.1
	Community dwellers	49	25.4
	Etc	4	2.1
Total	196	100.0	
Willingness to use welfare facilities	Yes	183	97.3
	No	5	2.7
	Total	192	100.0

IV. 요약 및 제언

이 연구의 목적은 농촌 폐교 활용 복지시설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과 관련된 상대적 만족도와 관련 주요 요인, 사회경제적인 유용성과 활성화 주요 요인, 향후 수요와 관련된 인식을 조사하는데 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경상북도 김천시에 위치한 사단법인 에제르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편의표집의 서베이를 진행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와 그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 폐교 활용 복지시설에 대한 상대적인 만족도는 긍정적인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와 관련된 주요 요인은 주요 시설 및 환경으로 나타났다.

둘째, 농촌 폐교 활용 복지시설에 대한 사회경제적인 유용성 역시 긍정적 수준의 응답이 높았으며, 관련 활성화 요인으로는 다양한 시설공간, 시설의 편의성 및 접근성이 꼽혔다.

셋째, 농촌 폐교 활용 복지시설에 대한 향후 수요 중 향후 적극적인 조성의 필요성은 긍정적인 응답이 매우 높았으며, 향후 이용의 우선적인 대상자는 아동 또는 청소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향후 농촌 폐교 활용 복지시설에 대한 이용 의사 역시 긍정적인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구 결과, 농촌 폐교 활용 복지시설에 대한 인식들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확인되었다. 편의표집 방식에 대한 일반화의 한계는 존재하지만 전체적으로 농촌 폐교 활용 복지시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향후 높은 수요를 기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농촌 폐교를 활용한 복지시설과 환경, 접근성과 편의성의 만족도가 높다는 점은 폐교를 활용한 복지시설만이 갖는 강점이자 고유한 정체성이라 할 수 있다. 이 점이 농촌복지 및 도농공존을 촉진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연구의 응답자 대부분이 30-40대의 기혼, 주부의 응답이 높은 표본의 결과일 수 있지만 농촌 폐교의 가치와 그 의미는 농촌과 도농공존 차원에서 그 유의미성이 앞으로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시 말해 과거 농촌 지역에서 학교가 마을 공동체 삶의 중심이자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중심적인 역할을 갖고 있는 것처럼(Autti and Hyry-Beihammer, 2014) 폐교 과정과 폐교 활용의 복지시설의 운영 역시 같은 기능과 영향력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더욱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모두 학업 활동 부담과 사교육 스트레스가 높고, 여가문화의 여건이 부족한 아동 및 청소년과 가족, 시민들에게 매우 유용한 지속가능한 농촌만의 고유한 그리고 도농 공존의 핵심적인 공유 자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저출산과 고령화, 지방 소멸화 문제로 도농 간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과 돌봄 격차가 심화되는 추세 속에서 농촌 폐교를 활용한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은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농촌 폐교 활용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향후 높은 기대는 기존의 농촌 폐교 관련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각 지자체교육청뿐만 아니라 농업, 복지, 보건, 문화체육예술 관련 부처 간 통합정책의 아젠다로 다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거시적으로는 농촌 폐교를 활용한 복지시설의 조성 계획과 운영은 관련 여러 관련 정부부처와 지자체 주도의 공통 정책방향으로 부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미시적으로는 농촌 폐교 활용에 대한 도시나 농촌 폐교 인근 지역사회 내 다양한 교육, 문화, 여가, 복지 관련 시설들과의 컨소시엄을 구축해 폐교 활용 계획과 운영에 관련된 다학제 차원의 구체적인 컨설팅, 가이드

라인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개발 촉진과 관련하여 복지 및 문화 서비스 차원의 다양한 지표 개발과 정밀한 검증이 중요하듯(Kim et al., 2019), 다학제 차원의 농촌 폐교 활용의 수요 및 공급영역, 전달 영역에 관한 세부모델과 지표를 마련하여 지역사회에 새로운 복지시설을 건립하기 보다는 농촌 폐교를 활용한 모델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더욱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농촌 폐교 활용 이용에 대한 만족도와 활성화 요인으로 시설 환경, 시설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폐교시설만이 갖는 물리적 강점과 함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신규 시설 설치와 개보수 등의 편의성 향상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근거이다. 예를 들어, 아동이 있는 30-40대의 가족 단위의 이용자들이 높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하면, 어린 자녀와 임신부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출입구의 경사로 설치와 단차 제거와 같은 매개시설, 안내시설, 휴게시설 등의 편의시설 지원에 대한 보건복지부나 지방정부, 지역사회 차원의 공적 지원 제도도 시범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농촌 폐교 활용 복지시설 서비스의 양적 및 질적 차원에서는 문화 및 여가, 교육, 복지 관련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제공되고, 서비스 품질 유지와 향상을 위한 컨설팅 사업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일부 지역의 연구대상자들과 제한된 조사 문항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이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대한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조사표본과 다양한 조사지표를 활용한 서베이, 관련 종사자 및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질적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2019년 대한민국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과제명: 사회복지제도와 농업농촌정책 융복합을 통한 지역맞춤형 도농공존 거점공간 모델개발 연구, 과제번호: NRF-2019S1A5A2A 03052335).

References

1. Autti, O. and Hyry-Behammer, E. K., 2014, School Closures in Rural Finnish Communities, *Journal of Research in Rural Education*, 29(1): 1-17.
2. Choi, H. W., 2020, An Analysis of Current Use for the Utilization of the Closed School in Gyengsangnam-do Province, *Youth Facilities and Environment*, 65: 67-76.
3. Egelund, N. and Laustsen, H., 2006, School Closures: What are the Consequences for the Local Society, *Scandinavian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50(4): 429-439.
4. Kim, H C., 2021,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Welfare Facilities for the Aged Using the Facilities Characteristics of Closed Schools - Focused on the Northern Area of Gyeonggi-Do,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Rural Architecture*, 23(2): 17-24.
5. Kim, J. K. and Lee, J. K., 2012, A Research of Utilizing for Closed Schools to Strengthening of Regional Competitiveness, *The Journal of Sustainable Design and Educational Environment Research*, 11(3): 13-24.
6. Kim, M. S. and Kim, T. W., 2020, Survey on Quality of Life and settlement satisfaction of residents in rural areas,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7. Kim, S. J., Bae, S. J., Kim, D. S. and Im, S. B., 2019, Development of Diagnosis System about Services and Infrastructure for Rural Welfare and Cultur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25(1): 51-65.
8. Kim, S. R., 2020, A Study on the Recycling of the Closed Schools in Japan - A Case Study on the Remodeling of Shinagawa in Japan,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Rural Architecture*, 22(2): 18-25.
9. Kroismayr, S., 2019, Small School Closures in Rural Areas - The Beginning or End of a Downward Spiral? Some Evidence from Austria, In: Anson, J., Bartl, W., Kulczycki, A. (eds) *Studies in the Sociology of Population*, Springer.
10. Lee, H. R., 2018, The Status and Application Cases of Closed Schools, Expecting the New Horizons, *Review of the Korean Institute of Educational Facilities*, 25(5): 7-12.
11. Lee, J. Y., 2020, The Study on Utilizing of Closed School Facilities using Big Data Analysis-Focusing on Daejeon, Sejong, and Chungcheong, *Mokwon University Thesis*.
12. Local Educational Financial Statics Information System, 2020, Closed School Statics. <http://eduinfo.go.kr/portal/theme/abolSchStatusPage.do>.(accessed on 1 January 2022) (in Korean).
13. Sung, J. H., Kim, S. S., Rhew, C. H., Cho, W. J. and Kang, K. S., 2020, Assessing Economic Value of Socio-Cultural Function of Korean Agricultur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26(4): 15-25.

-
- Received 17 January 2022
 - Finally Revised 8 February 2022
 - Accepted 21 February 2022